

靑 中 動

요즈음 협회의 기술직원은 강당 또는 각 지부 사무실에서 주3회의 기술향상 교육으로 바뀐다. 또한 내무부는 내무부령 제610호(80. 4. 30)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피험안전 점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행정관서와 안전점검 결과와의 업무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안전점검 결과의 행정체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위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장하여 협회의 기술인력을 보험기술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공단지역에 대한 점검대상지역의 확대방안도 거의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후위의 상황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상의 하나 하나가 안전점검 업무의 앞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전을 가져올지, 퇴보를 가져올지는 이등 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외형적인 업무의 팽창이나 지나친 자율성의 제한은 업무를 참체시킬 우려가 있고 보험에 방재기술의 활용(PML 산정 등) 및 점검 대상지역의 확대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실력 배양이 없이는 이러한 여건을 우리편으로 끌어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모처럼 실시하는 교육이 고갱이 되더라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다지는 도야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